



강원도정 소식

###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 주문

6월 부시장·부군수 회의 개최

강원도는 지난 22일 오후 4시30분 도청 신관회의실에서 최두영 행정부지사(사진) 주재로 6월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개최했다.



최두영 행정부지사는 “행정 부지사 취임은 개인적으로 영광스럽지만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강원도민 모두가 꿈꾸고 바라는 ‘소득 2배, 행복 2배-하나된 강원도’를 위해 부시장·부군수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최 부지사는 또 “최근 공직사회의 부패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고, 도내에서도 금품, 향응 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최 부지사는 아울러 “도와 시군간 소통과 협력은 지역이 발전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며 “지역의 이슈와 현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도와 시·군간의 상생·협력적 관계를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최광호 기자

# 화력발전소 논란 일단락

## 이덕용 이장단협의회장 “업체측 포기결정 사실 밝혀와”

고성지역 발전을 위해 유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맞서 논란이 일던 복합화력발전소 유치 문제가 업체측의 사업포기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고성군 간부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 대상 설명회에 이어, 5월 11일 고성군번영회와 이장단협의회 등 3개 사회

단체가 주관한 제안설명회 등으로 지역의 핫이슈가 됐던 복합화력발전소 문제가 4개월만에 마무리됐다.

고성군이장단협의회 이덕용 회장은 지난 23일 “최근 업체로부터 남해쪽에 건설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났다며, 그동안 협조해줘서 고맙다는 전화가 왔다”며 “환경에 큰 문제가 없다면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면이 있었는데 다소 아쉽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군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번영회나 이장단협의회 등 주민들도 논의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 송훈석 의원 학술 심포지움 개최

## ‘역동하는 동북아 지중해, 강원도의 역할과 과제’ 주제로

민주당 송훈석 의원(속초-고성-양양)은 지난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정관(105호)에서 관동대학교, 강원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역동하는 동북아 지중해, 강원도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2차 동북아 지중해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은 동북아 지중해(동해)가 끓어오르는 시기인 2012년은 강원도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선택시점에 있는 점을 들어 도가 처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도의 역할과 과제를 조명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강원도 국회 의원협의회장 최연희 의원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박희종 관동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최재선 한

국해양수산개발원 글로벌미래연구본부장이 ‘동북아 지중해(동해) 개발, 한국 미래 달렸다’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안병민 박사(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연구센터장)가 ‘동북아 지중해 주변국들의 동향과 변화’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했다.

이러진 토론에서는 김동주 박사(국토연구원 국토계획본부장), 김영식 교수(강릉대 국제통상학과, 러시아), 김기성 교수(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 등이 참여했다.

최광호 기자

## 정가/소식

### 한나라당 평창동계올림픽 점검회의

○...한나라당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선)는 7월 6일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이 약 보름정도 남은 지난 22일 오후 2시 렉싱턴호텔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막바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황우여 당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은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지원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김진선 당 특위 위원장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IOC 위원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당 특위 활동에 힘을 실어 준 박근혜 특위 고문은 “100m 달리기 할 때 마지막 결승점을 지나는 순간까지도 전력을 다해서 달린다”며 “우리도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민주당 도당 강원도와 정책협의회

○...민주당은 지난 22일 도청 신관 회의실에서 강원도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동계올림픽특별법’ 제정, ‘동계올림픽 특구지정’ 등 국회와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정부계획화 추진,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지원 방안 등 강원도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정부와의 연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행복한 어머니교실 개최

고성군 건강지원센터는 지난 21일 오후 2시 여성회관 2층 건강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지역주민 10여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어머니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어머니교실에서는 이수미 학습컨설팅센터 이수미 소장이 나와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른 부모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박승근 기자